

요약

개인 소비자들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보험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지만, 개인 소비자의 가입률은 낮음. 한편, 영국보험협회는 현재 개인 사이버보험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래에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최근 보험업계는 개인 사이버보험에 관심을 보이며, 일부 보험회사는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뮌헨재보험(Munich Re) 2024년 설문조사¹⁾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개인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4억 명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소유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온라인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 소비자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개인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원 도용, 온라인 사기, 사이버 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5개국에서 7,500명 이상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우려 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57%는 실제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가장 우려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송금 사기(67%), 신원 도용(66%), 온라인 사기(63%), 데이터(예: 문서, 사진)의 도난(63%), 그리고 전자장치의 데이터에 대한 랜섬웨어 또는 암호화 공격(52%)을 꼽았음
 - 그러나 응답자의 86%는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 또는 사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음
-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개인 소비자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사이버보험은 개인 소비자가 온라인 사기, 사이버 갈취, 데이터 도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금전적 손실 보상, 위기관리, 데이터 복원, 전문가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이버 위협의 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이버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24년 설문조사에는 응답자의 19%만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함
 - 사이버 위협의 피해를 잘 모르거나 자신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버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 어려움이 개인의 사이버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함
 - 다만, 긍정적인 점은 많은 응답자가 온라인 사기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1) Munichre(2024. 7. 9), "Global Cyber Risk and Insurance Survey 2024: Personal Lines"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는 데 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응답자의 36%는 적절한 보장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한편,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개인 사이버보험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²⁾

• ABI는 최근 1년간의 개인 사이버보험에 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이 여전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개인 소비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개인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갈취, 데이터 도난, 온라인 사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심각한 사이버 범죄의 결과나 평판 손상, 무형 자산과 관련된 피해는 보장하지 않음

• 또한, 개인 사이버보험의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낮아서, 판매 비용이 보험료 수익을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개인 사이버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판매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소비자들이 사이버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용과 업무용 장치의 혼용 증가, 사이버 괴롭힘 방지, 고액 자산가의 수요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인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사이버보험 시장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함

- 이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개인 사이버보험 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시사함

○ 최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사이버보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보험회사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이버보험 상품을 출시함³⁾

• 2024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Verdict Media' 사이트에서 실시한 'Global Dat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보험업계 관계자의 63%가 개인 사이버보험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이를 가장 바람직한 신흥 상품으로 꼽았음

• 개인 사이버보험은 전통적으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함에 따라 예방 서비스가 개인 사이버보험의 중요한 보장내용이 됨

- 원천재보험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방화벽, 멀웨어 방지 도구, 데이터와 시스템 백업, 패스워드 관리와 같은 예방 서비스가 개인 사이버보험의 중요한 보장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취리히보험(Zurich Insurance)은 사이버보험 전문보험회사인 BOXX와 함께 사용자에게 아이디 보호, Wi-Fi 보안과 같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을 출시하였으며, 악사스위스(AXA Switzerland)는 고객이 'myAXA'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이버보험을 출시함

2) ABI(2024. 6. 25), "Uncovering the Potential: Personal Lines Cyber Insurance in an Evolving Landscape"

3) Yahoo Finance(2024 .5 .30), "Personal cyber insurance is the most desirable emerging product"